

01 교회소식

마음의 소원 응답받아

'2019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농아 성도들에 관한 소식과 권능의 기도로 귀가 열린 메이프리트 성도 간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게 풀리며,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 또한 영적인 사랑이다.

03 기획특집

받은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을!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 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 그 가운데 몽골 전통 기예를 선보인 우일스진 자매 간증.

04 간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이 떠나 새 삶을 사는 말레이시아 쉘핑핑 성도와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은 최계순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904호 2019년 9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 행복해요!”

9개 수어 동시통역으로 마음의 소원 응답받은 국내외 농아 성도들



해마다 '만민하계수련회'에서는 농아 성도들의 귀가 열리거나 열린 귀가 더 잘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 국내는 물론 해외 농아 성도들까지 함께하고 있다.

지난 8월 5~7일,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2019 만민하계수련회'에는 말레이시아, 덴마크, 독일, 페로제도 4개국에서 농아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수련회장은 물론, 방송 매체로 함께하는 농아 성도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에도 독일, 덴마크, 페로제도, 라트비아, 태국, 멕시코 등 9개 수어로 동시통역되었다.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가 기도해 줌으로 국내를 포함하여 40여 명의 농아 성도가 청력 회복의 축복을 받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오른쪽 청력이 살아난 바 있는 링 순 니농 형제(24)는 이전보다 더 잘 들리게 되었고, 링 쉬란 자매(28)는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던 왼쪽 귀가 보청기 없이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시부만민농아교회에서 온 이들 남매는 선천성 농아였는데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기

도받고 이 같은 응답을 받은 것이다.

페낭만민농아교회 이 잉 성도(여, 54)는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전과 확연히 차이를 느꼈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소망은 앞으로 귀가 더 온전히 들리고 말문도 트여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행복한 소식을 전해 왔다.

이 외에도 농아 성도들은 수련회를 통해 다양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2018 만민하계수련회'를 통해 뼈암의 고통에서 해방된 독일의 레베카 바르바라 볼라트 성도(여, 50)와 예배 시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전이성 암으로 인한 목 통증을 치료받은 바 있는 덴마크의 지레 다히 성도(여, 62)는 모두 올해 수련회 참석을 통해 이전보다 귀가 더 잘 들리는 축복을 받았다.

중국, 라트비아, 태국 등에서 네프시스(다중 화상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권능의 기도를 받은 성도 가운데 총 24명이 청력이 살아나거나 더 좋아지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한편,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는 말레이시아, 태국, 라트비아 3개국에 13개의 농아 만민 지교회와 독일, 페로제도,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 우루과이, 인도, 홍콩, 미얀마, 미국, 케냐, 인도네시아 14개국에 농아 성도들을 위한 가정교회를 두고 있다.

“선천성 농아였던 제 귀가 열려 이제는 더 잘 들리고 있어요”



메이프리트 한센 성도 (40세, 페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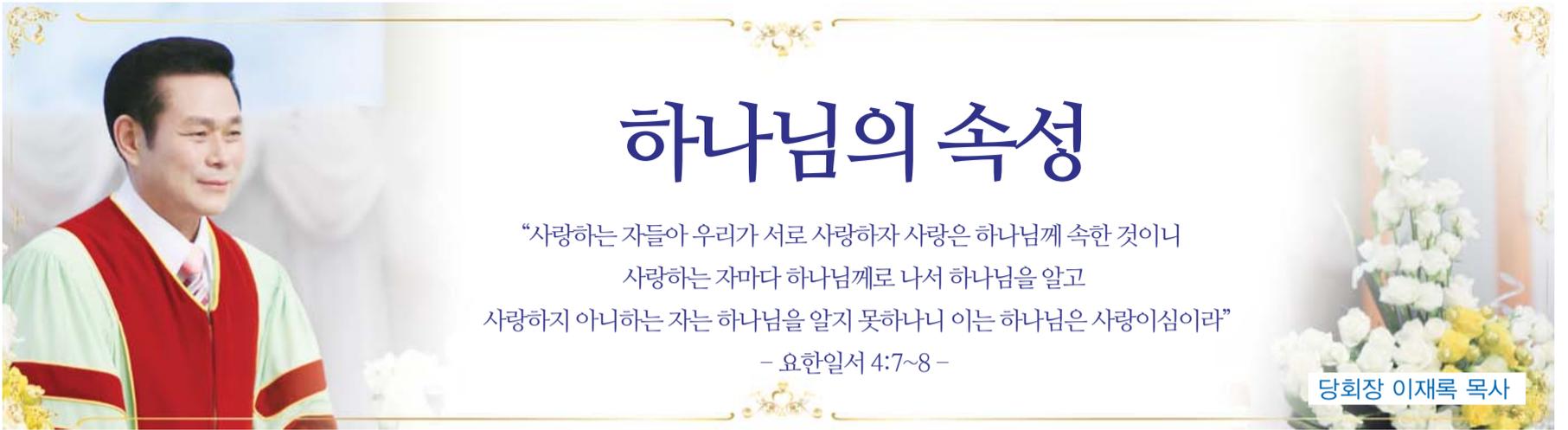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의와 진리, 참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이 속 시원히 풀렸고 영적인 통찰력도 갖게 되었지요. 영의 세계와 천국에 대해 깨닫게 된 후에는 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해졌습니다. 이후 네프시스(다중 화상 사이트)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남동생(한스 한센, 34)과 함께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농아인 저희 남매가 수련회를 참석할 때마다 청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요(아래 사진).

'2019 만민하계수련회'에서는 청력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지난 6개월간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 결과, 천추 1번과 요추 5번 사이에 디스크 돌출이 심함으로 척수가 눌러 마비 증상이 온 것이라 하였는데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기도받고 즉시 치료된 것입니다.

남동생 또한 17세 때부터 저하된 시력의 호전을 응답받고자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전에 시력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요한일서 4:7~8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점차 하나님을 닮아갈 때 결국에는 성결의 차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본은 사랑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벧전 3:20 ; 벧후 3:9),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시 103:8 ; 사 54:8 ; 애 3:22 ; 약 5:11),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삼상 2:2 ; 호 11:12 ; 고후 1:12 ; 벧전 1:16), 정확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편벽됨이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대하 19:7 ; 시 37:6 ; 속 9:9 ; 벧전 2:23),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약 1:17) 등 다양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도 표현하는데(출 20:5 ; 수 24:19),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신 10:12~13).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로서 편벽됨이 없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된 것, 즉 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한 진리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게 풀리며, 성경 66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여 영적인 사랑으로 마무리 됩니다.

2.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 경작의 섭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부터 사랑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영원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본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주변에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사랑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로봇과 같이 단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기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고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따로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최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성을 모르는 상태였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셔도 불행이나 죽음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

시고,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막지 않으셨지요. 이는 인간 경작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작을 받으며 미움, 슬픔, 고통, 불행 등을 체험해야만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결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마침내 인간 경작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 뜻을 벗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이르자 대홍수의 재앙을 통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 후세에 큰 교훈과 함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 다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시면서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 그 날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 인간 경작 통해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후세에 전달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지요(요 15: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줄 아시면서도 굳이 허락하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정립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벗의 관계를 이루게 된 아브라함을 인간 경작의 표본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나 개개인에게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축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이룬 후에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며, 무조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 경작을 통해

진리로 나오는 만큼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축복과 응답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큰 것을 주시고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마음도 느껴지는 것이며, 마침내 응답받았을 때의 감격을 체험한 후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이 땅에서 경작받아 나가는 것

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날마다 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일스진 자매 (16세, 몽골 울란바토르)

저는 지난 8월,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 차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했는데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 때 몽골의 전통 공연인 기예까지 선보이게 되 행복했습니다.

사실 5년 전 초등학교 때 몇 번 기예를 했을 뿐인데, 이번 행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지요. 주님의 은혜로 아주 어려운 동작까지 소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만민교회를 만난 후 간증이 넘칩니다. 올해 3월, 저는 금요일아침예배 2부 은사집회에 생방송으로 참석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치료받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 갑자기 몸이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아프고 피가 나는

데 은사집회 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이후 확인해 보니 바로 그날 흉터도 없이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전에는 공부도 잘 못하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이 올라 선생님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었지요.

또한 올해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무용대회에 학교 선수로 출전하여 금메달도 땀습니다. 3년 전 겨울에는 썰매를 타다가 실수로 나무에 머리, 이마 등을 부딪쳐 이마가 붓고 멍들며, 고열이 나고 잘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와 발저릭 선교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는 이를 후 통증이 사라지고 흉터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몽골만민교회로 인도받은 뒤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울란바토르 시 바양걸 구청 소속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면서 1년 동안 세 번이나 승진하여 지금은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모두 주님의 은혜요, 당회장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

으셨는데 임질(임균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성병)이라며 의사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한 병이었기에, 어머니는 당시 진행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때 불같이 기도하며 3일 만에 치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올해 4월, 외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인두암 말기로 사형선고를 받자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셨지요. 마침내 할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뒤 건강이 호전돼 식사도 잘하십니다. 이제는 차도 타고 다니시며 양 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2009년부터 무릎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가 떨리는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으시고 심장 통증도 사라졌지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잉카 고유 악기 등 8가지로 아름답게 울려 퍼진 감동의 연주

지난 8월 2일 금요일아침예배 2부 시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몽골 성도들의 전통 공연인 기예와 무용을 비롯해 몰도바 알렉산드르 파바리누 선교사와 손영락 장로의 러시아어 특송, 크리스탈싱어즈와 파워워십팀, 주사랑 선교회, 중국교구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가운데 페루만민교회 엘리야스 빨로미노 성도의 팬 플루트 연주는 전통 의상과 함께 이국적인 느낌으로 색다른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

'엘 콘도르 파사'라는 곡을 연주했는데, 플루트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잉카 고유의 피리인 팬 플루트, 빨 플루트, 체루키 플루트, 껌나, 슬라이드 휘슬, 오카리나, 대나무 오카리나를 비롯 새 모양의 워터 버드 휘슬 총 8가지의 악기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 곡은 페루 전통음악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콘도르 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엘리야스 빨로미노 성도는 페루만민교회 개척 멤버로 현재 예능위원회 부위원장과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고 있다.

“악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 받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츄핑핑 성도 (44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민하게수련회는 제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2019년 8월,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와서 전북 무주덕유산 리조트 점핑파크에 들어서자마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입니다. 2017년 만민하게수련회 당시, 제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악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 받을 때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셔야 해요”라고 부탁하셨던 음성이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열네 살 때부터 삶의 의욕을 잃고 진정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빠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우울했으며,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곤 했지요. 그 와중에 우연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보게 되었지만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쿠알라룸푸르 국제 도서전’에서 정드보라 만민출판사 사장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중국어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도 구입해 읽었지요.

2016년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만민의 성

도로 등록했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몸에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해 발작했지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꿈을 꾸 뒤 정신이 맑아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2017년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여 온전히 응답받고자 당회장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2017년 8월 7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두 손에 전율이 흐르면서 심하게 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의식은 있으나 몸을 통제할 수 없었지요. 다시 한번 당회장님께서 제게 기도해 주시자 곧 바로 악한 영이 제 안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해져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지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늘 평안합니다.

이전에는 제 스스로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아 잘 걷게 되었습니다”

최계순 집사 (67세, 3대대 29교구)



몇 년 전부터 무릎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2019년 5월부터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퐁퐁 부어 가만히 있어도 쭈시고 아팠으며, 서 있으면 고통이 더했지요.

통증으로 걷는 것이 힘들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었고, 밤에 잠 잘 때조차 무릎이 쿵쿵 쭈시니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양손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어깨 통증 등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가오는 수련회 때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믿음으

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담은 당회장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민기도원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고 예배도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기쁘고 설렘이.

또한 형편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못하고 있었는데 당회장의 지원으로 틀니를 하고 난 뒤 무엇이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8월 5일 저녁, 만민하

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후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해주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던 저는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매우 상쾌해짐을 느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져 걷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무릎의 부기도 전혀 없고 아무리 걸어도 아프지 않으니 온몸이 날아갈 듯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9-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미디어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염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생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